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7
Jul. 2022
Vol.10 No.07

통권 95호

- 제23기 주안에만남
- 제6회 주안에놀러와
- EM / 코람데오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멕시코 농장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캄뽀) 내 아이들이 단기선교팀이 마련한 게임을 즐기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 선교팀)

천진한 미소 맑은 동심 'Jesus te ama!'

■ 멕시코 단기선교

설레는 마음으로 등록했던 멕시코 선교는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녹록치 않았습니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팀에게 더 기 도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 다. 그렇게 세워진 26명의 선교단원이 주일 1부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7월 31일 주안에 식구들의 환송으로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날은 사역준비와 정리를 하고, 드 더 월요일 새벽 3:30 분 기상으로 시작되

었습니다. 어른으로 아이들까지 모두 눈을 부비면서 시작된 첫 사역은 새벽부터 농장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커피와 초코파이, 컵 라면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 는 것이었습니다. "Jesus te ama!"

작은 것에 고마워하며, 사랑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그 표정들은.. 다 준비된 선교에 서 조금 거드는 것 밖에 없는 것에 그 동안 관심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선교 센터로 돌아와 아침 식사 후 함께 모여 QT를 하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가서 준비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를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기던 어린 아이들의 맑은 눈빛들... 너무나 기다리던 눈빛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사랑이 고팠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감정에 손만 잡아도 활짝 웃음짓던 아이들에게서 참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을까? 불평, 불만, 염려.. 그 모든 것이 너무 풍요한 가운데 더 채우지 못한 욕심, 탐심이 아니었을까? 과연 그 공간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3면에 계속) | 이현주 집사 |

■ 담임목사 동정

■ 새가족 주안에만남

팬데믹 속 부르심 ‘하나님 섭리’



할렐루야 뉴욕부흥대회 은혜 물결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시 플라싱에 위치한 프라미스교회에서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가 성황리에 나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31일 폐회했다.

대회 주강사로 집회를 이끌어간 최혁 목사는 하나님의 방주이며 갈대상자인 ‘테바’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지식을 쌓기에 더욱 힘써야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모든 삶을 그 분께 의탁하고 내어맡기길 강조했다.

이튿날에는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인생의 타이밍은 세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초월공간 속 시간이라는 점을 전했다.

할렐루야 폐회 다음날인 8월 1일에는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하며 목회자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200여명 목회자들의 감동과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는, 험난한 세상에서 끝은 신앙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다짐하는 귀하고 소중한 집회였음을 느끼게 했다. | 오희경 기자 |



지난 7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벨리채플 친교관에서는 제23기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장년 28명과 청년부 5명의 새가족이 탄생하는 친교실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전에 전원 참석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안예교회에서의 새로운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새가족국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스테이크 정찬요리가 시작되면서 김진석 새가족국장의 시작 기도와 함께 한 찬양은 시작부터 감동이었다.

만찬 후 최혁 담임목사는 주안예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와 목적, 담임목사로서의 목회철학 등을 잘 설명해 주었다.

다음은 각자 자기소개하는 시간. 청년부의 조윤이, 김건영, 서혜빈 성도는 친구의 소개로, 최혜연, 최정윤 성도는 부모님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스티븐슨 랜치에 살고 있는 윤영준, 조아라 집사 부부는 7살 아들 윤지훈의 같은 반 엄마로부터 주안예교회를 처음 소개받은 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설교를 들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였다고 한다.

김영진, 유한나 집사 부부는 두 달 반 가량 교회를 찾은 끝에 우연히 방문한 날이 부활절 예배 주일이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바로 등록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윤영자 집사는 이사를 한 후 교회를 찾느라 여기저기 다니다 우연히 들러본 주안예교회의 설교말씀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에 그날로 등록을 하였다고 한다.

성재영, 성희정 집사 부부는 2년반의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찾던 중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장 큰 주안예교회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조정현 장로와 조희순 권사는 40년간 LA에 있는 교회를 섬기며 주안예교회는 가끔씩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40년 배운 것보다 짧은 시간 배운 것이 더 많다고 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진영 집사는 예전에 주안예교회에 한 번 왔었을 때 말씀이 좋아 새벽기도를 참석하면서 과거에 두리무실하게 알던 말씀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박순자 집사는 주안예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면서 삶의 기쁨이 넘치며 살고 있으니 매주 주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

50년 넘게 불자로 살아온 윤상숙 성도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관계간증: 4면)

오늘 주안에가족으로 새 출발하는 새가족 33분 모두 주안예교회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한다. | 임용자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고단한 3박4일 기쁨이 넘친 사랑의 잔치

〈1면서 계속〉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 모두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이어진 워십댄스, 스킷 드라마, VBS, 사진찍기, 의료팀 봉사.. 모두가 EM, KM 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빛으신 그 그릇대로 쓰임 받으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권사님의 사랑이 담긴 저녁으로 재충전하고 서로의 간증으로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EM 아이들의 찬양과 QT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눈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둘째날은 더 많은 교인들이 몰려와 준비한 음식(600명분) 이 부족할까 잠시 걱정했지만, 이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깜뽀" 라는 농장을 방문 했습니다. 물러 코스터를 타듯 돌밭길을 30분 이상 지나서 만난 그 곳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누리 는 의식주 모두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불편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러나 캔디를 주며 인사할때 그 표정은 반가움과 끊이지 않는 "gracias" 라는 말은 마음을 울리며, 절대 채움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감사한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우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의 3일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멕시코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신 김 목사님, 수십년간 선교사역을 이어오신 장로님, 모든 일정을 계

회함으로 브리핑을 이끄신 집사님, 온전으로 오며가며 헌신하신 장로님, 집사님, 맛난 양식으로 음식을 준비해주신 권사님, 우리의 건강과 의료 미션으로 섬겨주신 권사님, 집사님, 원장님, 모든 살림을 계수하며 꼼꼼히 기도로 섬겨주신 집사님, 무엇보다 EM 친구들의 헌신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의 선교의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JESUS TE AMA!



반갑습니다... 많이 드세요... 함께 뛰어요 '주안에 한가족'

■ 주안에놀러와

독립기념일의 연휴를 교회에서 운동으로 교제도 하고 바베큐를 비롯한 풍성한 음식도 즐기면서 마음껏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는 '주안에놀러와' 행사가 지난 7월 3일 주안에교회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지난해 까지는 독립기념일 당일에 진

행하면서 해가 저물면 벨리채플 바로 옆에 위치한 웨퍼드교회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를 감상함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시작해서 알찬 하루를 보내고, 독립기념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뜻깊은 배려가 숨어있는 놀이 한마당이였다.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과,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겹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용기의 불씨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련된 '주안에놀러와' 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사랑' 이 강조된 행사로 기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희경 기자 |

길 잃은 어린양 찾아온 하나님 은혜

진심어린 환영과 배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나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거의 한 교회만 출석했던 내가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새신자의 만남의 자리에 나가 앉아 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윤진영 집사

그런 자리에서 내 역할은 언제나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선물을 전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아닌, 직원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 그런 예전의 나와 그곳에서 섬기시던 주안예교회 새신자 사역팀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때때로 하기 싫어도 했고, 일은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고 불평할 때도 많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이 내 마음 속에 교만의 재료가 되기도 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주안예만남에서 섬기시던 성도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정성스럽고 은혜로웠다. 솔직히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마스크 속에서 미소가 새어 나왔다.

나는 주안예교회에 여러 가지로 지은 빛이 있다. 한 7-8년 전쯤 큰 아이의 문제로 처음 다니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몇 달간 주안예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었다. 목사님 말씀은 그 전부터 CD로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들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마음을 정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목회자의 자녀인 나는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입장이고 보니 너무도 그 상황이 싫고 관심을 가져주신 권사님께도 죄송했다.

그런데 떠나는 마당에, 그냥 조용히 있던 일처럼 사라지고 싶는데, 권사님께서 굳이 목사님과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잠시 목사님을 뵙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카랑카랑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잠시 왔다가 떠나는 성도를 위해 간절히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 글을 빌어서 목사님과 권사님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50년 이상 불자생활 주안예교회로 첫걸음

저는 50년 이상 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한 불자였습니다(내 생애 첫 교회-주안예교회). 간접적으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유튜브 '이지성 TV'의 이지성 작가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 분이 경제 공부는 뒷전하고 늘 한국 교회를 비판하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요. 성경책을 보라고요." 하며 열변을 토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라는 호기심이 발아하기 시작하니 오며 가며 보았던 주안예교회 간판이 '어서 오세요' 하며 속삭이던 날. 이번 주일(11.14.2021)에 한 번 가보자 하는 마음을 내었으나 막상 주일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나와 함께 동거하였던 마귀가 '내가 언제 교회에 갔다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가니.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늘은 그냥 쉬자' 하며 나를 유혹하였고 나는 그 이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기까지 나의 마음 안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였고, 나는 허공에 대고 "알았어요.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에 주안예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으며 지금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 커다란



윤상숙 성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과 분위기. 어느 한 분도 "내가

이 교회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라고 내세우시는 분은 없는데 모든 면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지고 낮아짐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봉사'라는 것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개 뻗뻗한 사람을 고개 숙이기 위하여 최혁 담임목사님 설교 앞에 앉혀주신 분. 최혁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께 한결을 한결을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생애 첫 교회 생활을 이렇게 멋진 주안예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병아리이지만 저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와~ 이 교회는 가족을 기르나 봐. 목장이면 말일까? 젓소일까? 어떡해 나는 주일 후에는 시간 여유가 없으니 목장 봉사는 못하겠다' 하며 걱정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하하

앞치마 두른 장로님의 '아름다운 섬김'



참된 가치, 참된 교회

할렐루야! 먼저 이
토록 아름다운 교회
와 좋은 목사님을 만
날 수 있게 해주신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구대니 집사

먼저 부족한 저희를
주안에만남을 통하여 기쁘게 반겨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신 목사님과 장
로님들, 그리고 모든 staff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융숭하고도 과분한 대접에 조금
의 부담감도 없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
여 우리를 대접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
들의 진정한 정성이 느껴져 감사한 마음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름다운 섬김과의 만남, 무엇보다도 앞
치마를 두르시고 손수 음식들을 서빙하
시던 목사님과 교회의 어른 되시는 장로
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안에교회의 리
더분들의 참봉사와 아름다운 섬김의 마
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과의 만남, 식사 후 각자를 간단히
소개하는 순서를 통해 최소한 그날 함께
참석했던 새로운 교우들의 서로를 조금
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던 유쾌하고 재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과의 만남, 개인적인 친분
이 전혀 없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보
였던 웬지 무뚝뚝하실 것 같은 최혁 목
사님, 주안에만남의 시간을 통해 유머도
많으시고 웬지 조금은 수줍음을 타시는
순수한 소년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
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참
된 성경적 가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비전과 노력들을 말씀
하실 때에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동안
저 또한 많은 은혜와 새로운 도전을 받
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에교회와의 만남, 교회
를 옮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실천에 옮기
기 까지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갈급함, 신앙의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주안에교
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안에만남을 통해 목사님께서 함께 나
누셨던 목사님의 교회와 목회의 비전에
100% 공감하며 저희도 미흡하나마 조그
만 힘을 보태고 싶은 도전을 받게 되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EM · 코람데오 볼링 아우팅

EM · 코람데오 하나가 됐어요!



지난 7월 3일 주안에놀러와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EM과 코람데오 청년부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정리를 다 마친 후, 두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기로 하고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됨”. 피곤했을 법도 한데, 모두가 기꺼이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EM과 코람데오 청년부는 주일 예배 후 배드민턴으로 모이기도 하며, 정식 행사로 정하지 않은 때에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등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이성우 전도사 |

영제너레이션 / 안혜준 자매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테바(תֵּבָא)'는 방향 키가 없고, 동력 장치와 브레이크도 없다. 테바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때와 방향과 속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안혜준 자매는 석사 과정을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가족에게 닥쳐와 시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심해져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최종 오디션에서 떨어지게 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마주하게 된 문제들과, 하필이면 이 때에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 괴로워하던 중에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갔고,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을 통해, 낙심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었고, 복잡하게 얽혀 가족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갔다. 꾸준한 치료로 손가락의 마비 증세도 나아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문제 속에 함몰되어 불안해하지 않을 담대함도 자라났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지원한 줄리어드 음대 석사과정 시험에 합격하여 곧 뉴욕으로 떠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주관과 인간적인 마음이 우선되어 불안함과 초조함을 지울 수 없었던 처음 시험과는 다르게, 두 번째에는 시험에 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마음먹게 됨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로



보여주셨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를 위하여 연단을 허락하시고,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부르신 것 같다고 귀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깨우쳐주시는 부모님(안진호 안수집사, 안희성 권사)은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코람데오 한어 청년부의 진심어린 응원도 감동적이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안혜준 자매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겸손히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 황성남 기자 |

■ ICY 졸업자들 소감



Daniel Chang

I have yet to have any unpleasant memories with ICY. Every week, every moment spent with ICY was always fun, memorable and most importantly, for God. The core memory that sticks out to me the most was my first winter retreat. The first time I had truly felt the Holy Spirit over and within me.

I'm still very new to the Word, but a verse that'll stick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not just college; Romans 12:9-10. To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love and to honor one another above myself. It was always a life motto of mine before I had even found God, and now I live by it for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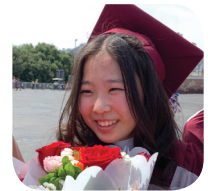
The ICY leaders are some of my closest friends, my second family. To thos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of mine that I love so dearly, I thank you for putting up with me. I hope the time you spend me with is as enjoyable as it is for me. To P.Sam, P.Jen, Laura and Tom Teacher, thank you for showing me love and support in all aspects of my life. You helped me learn from my mistakes and pushed for my growth in faith when you didn't have to. You guys have told me things I will carry till the day I die. I wish I could express my gratitude more.

All glory to God! This past journey c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Him and I look forward to what he has in store for me for the years to come.

It was an incredible blessing to be part of ICY for six years during my nine years at ICC. When I officially became a part of ICY after leaving ICKidz, one of the youth pastors gave me a frame with a bible verse as a gift.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1. This verse always comes to mind when I start overthinking my future. It serves as a reassurance God will continue to look after me for the rest of my life. Although my first years at ICY were unforgettable, I had the most memorable moments during the last years. I especially remember getting boba and snacks after Friday services. I loved having fellowship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To PSam: I am so thankful that God allowed me to meet such a wonderful pastor so early in my life. I have always seen you as

a role model, and I will continue to do so. Thank you for continuously being so patient with me and showering ICY with all your love. To Justin Park: Although I have only known you for the last four years, you have made an enormous impact on my life. Thank you for dealing with me when I was part of your small group. Thank you for teaching me how to be a better sister-in-christ. And most of all, thank you for being a friend whenever I needed it. To everyone who is in ICY or coming up to ICY: I had the greatest blessing to get to know you all. I hope and pray you will get to meet God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Him. Do your DT...God's watching you.



Hanbi Cho

A good memory I have while being with ICY was during winter retreat of 2021. Although it's almost been a year, during that time, I believe that I became close with a lot of ICY members but it was also where I found my faith in God again.

A bible verse I will keep in my heart as I leave for college is Psalms 138:3. "In the day when I cried out, You answered me, And made me bold with strength in my soul" (NKJV). This verse helped me with remind-

ing me that through prayer, God will always be there for me and will help me no matter what. I would like to say to my fellow ICY brothers and sisters, leaders, P.Sam, and to ICC for greeting me so nicely. Since I was kind of new, after we came back for in person worship, I remember the community being so invitational towards me. Especially the leaders, which makes me so thankful for, since it's what led my family to continue to keep coming out, of course, also because of the wonderful services, words, and worship. And, because of this church, I can proudly say that I was able to regain my faith in God and continue my walk in faith with him.

I was welcomed with smiles and hugs on my first service at ICY. This same energy never changed and persisted for the next 5 years. I was more than honored to share this same welcome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in Mexico during the 2019 mission trip. Even though the schedules were draining and we were all sleep deprived, the smiles the kids gave us were irreplaceable. It surprised me how a simple meal or facepaint could bring such joy; things we often took for granted in our privileged lives. My time here also allowed me to bond with friends and leaders I was still distant to at the time, as we all united under Christ. I continue to live on the magnitude of gratitude and humility the Lord gifted me during this experience. It was a truly humbling course of days that still impact my life to this day.

In this new chapter of our lives where we'll inevitably face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and possibly fall into despair, it'll most

definitely test our belief in God. However, like in 2 Corinthians 5:7;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Sometimes the picture God paints for us isn't fathomable with our eyes and differs from our goals. His master plan requires a leap of faith. No matter how hard it is to believe, we have to remember to obey God, because God is good.

I have nothing but respect for P.sam in his undying love and devotion to the youth ministry. His work ethic and humility for Christ is something we the youth have to put into action and model ourselves. Thank you ICY and ICC for being the spiritual platform for my success and providing me with truly life changing memories and words of wisdom. I hope to further build on my faith throughout my life with my community. I love you all.



Joshua Cho

■ 주안에 아기들 사랑의 손길 요게벳 봉사자들

'못다한 엄마사랑을 대신하며'

조근자 권사님께 어떻게 해피반에서 23세 아이들을 섬기고 계시는지 여쭙으셨더니, 원래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싱글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돕는 봉사기관에도 관심이 있으셨는데, 함께 봉사하자고 권유하는 다른 집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기쁨으로 섬기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는 권사님은 오히려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울 당시에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빴고, 여유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날 권사님의 자녀들을 추억하게 되고, 또한 과거에 자신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는 일이 힘드실 텐데도, 기쁨이 가득하신 모습으로 인터뷰에 답해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십니다. 기쁨으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함께 행복해 집니다. | 류명수 기자 |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

말씀에 이끌려 과감하게 주안예교회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게벳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왔을 때 저는 이번 교회에서는 조용히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찢림이 생기고 절 아시는 권사님의 권유에도 아직은 아니에요로 대답했지만 전도사님의 권면에는 거절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네 아이들을 업어주기를 좋아했고 10년 이상 아기 돌봄 사역을 했지만, 자신감보다는 낯선 곳에서의 섬김에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험 많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하나 둘 보내주셔서 지금은 일곱 분의 선생님과 함께 기저귀 차고 유모차에 탄 채로 예배드리는 아이부터 유치원에 가기 전의 아이까지 약 15명, 그리고 오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치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걸까 하는 마음의 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인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분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저도 빛진 자로써 아이들에게 그 빛을 झा아 보려 합니다. | 김혜순 권사 |



■ 교우동정

새 가정 축하합니다! 새 생명 축복합니다!

이지현 집사-조범열 성도 결혼
적령기를 맞은 딸이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는 딸의 결혼이다. 주안예교회가 플러튼 다운타운에 있을 때부터 이정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파리가 되어 MP, BP, OC로 이어졌다. 몇 달 전 OC 채플 새벽예배에 이정희 권사님이 나오시고 얼마 지나서 딸 이지현 자매가 동행을 했다. 인원이 적어 가족 분위기의 새벽예배 중에 젊은 청년이 오니 반가워 기도 제목을 물어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 왔다. 얼마 후 그녀의 하얀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를 발견하고 프러포즈 받은 것을 알았고, 우리는 가슴 두근대며 진행 과정을 지켜보았다. 어머니 이정희 권사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들어주신 하나님의 섬세함에 놀란다. 주안에놀러와 때 미



리 와서 소개를 받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족과 돕는 교역자의 노력으로 참 아름답고 성대한 결혼식을 갖게 되었다. 목사님의 축사는 이미 성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깊은 느낌을 주었다. | 이에스더 권사 |

권성재, 윤솔 성도 득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달 초, OC채플의 권성재 형제, 윤솔 자매의 첫 딸 스텔라 라운이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출산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로 자라나며 주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한다. | 고한선 집사



■ 코람데오 새가족 소감

예배의 회복, 임마누엘 하나님!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교회와 예배를 쫓 쉬었습니다. 마침 이사한 집 가까이에 주안예교회가 있어 2022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는 의미로 그때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가까우니 무언가 마음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들고 교통과 주차가 편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 훈련과 모임 등을 통해 만나게 된 성도님들의 다정한 인사와 따뜻한 사랑이 낯선 교회에서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에서는 2년간 쉬었던 성경 공부를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고 싶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 선교도 나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병과 함께 무너졌었던 저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저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최정윤 성도

교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형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주안예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참석도 잘 하지 않고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고 했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코람데오 멤버들 덕분에 지금은 즐겁게 교회생활과 청년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주안예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선물 받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주안예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보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주안예교회 감사합니다.



김건영 성도

■ 대학에 딸을 보내며... 엄마의 글

이경민 집사

워킹맘으로 18년.. 대학 입학 기본과정 까지의 긴 시간이 끝나고 나니 왠지 모를 감격과 시원 씩씩함에 만족감이 교차로 합니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일등으로 아이를 내려놓고 운동장에서 기다릴 것을 두세 번 다짐 시키면서도 미덥지 않아 몇 번을 뒤돌아보면서 운동장을 빠져나갔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춘기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도 생각해 보니 길기만 하던 시간도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네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불가능한 아이 양육을 완전히 책임져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기에 너무 충분한 감사의 대학 입학..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뒤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 뿐만 단 하나도 아이의 일상을 거들 수도 간섭할 수도 없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9월이면 기숙사로 향하며 떨어질 사랑하는 딸이 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에서 기준을 찾기를 기도하고, 힘든 공부를 잘 마치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대학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모두 돌려 드립니다.

이소의 집사

우리 아이들은 11년 전에 큰 아이가 10살, 작은 아이가 6살인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지인인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로 저녁을 먹던 중 남편에게 그냥 흘리면서 했던 한마디의 말이, 나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나에게 모두 표현하지 못했기에 가까이 계시던 분이 엄마가 들어와야 할 것 같다는 소리에 저는 하루빨리 미국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 3년 반이 지나서 인터뷰 요청이 오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봉사도 하면서 신앙심이 깊어가는 모습도 보였고 힐링캠프에서 만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작곡으로 대학을 가려고 수년간 공부를 한 큰 딸은 갑자기 졸업 2년을 남기고 미술을 시작한다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하는 소리에 미술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미국 전역에서 미술하는 학생 중에 최고의 상도 수상하게 되고 RISD 라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프로젝



트에서도 교수님들의 극찬과 눈길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젠 작은 딸까지 엄마

의 품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나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바램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니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들어서 잘 하고 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엄마가 있는 근처의 대학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집과 아주 가까운 Pepperdine 이라는 대학으로 보내주셨고 아이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두 딸이 미국에서 지내왔던 과정과 생활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설교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을 아이들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는 나의 기도의 자리와 방식을 찾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말 한마디가 천군과 천사가 나의 가족과 아이들을 향하여 움직이는 부모로서 기도하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김선희 기자가 만난 사람/ 김헬렌 권사

‘천국 가기 전날까지 예배에 쓰임 받기를...’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2015년에 21세의 나이에 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음악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22년 올해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10대의 나이(18세)로 "반클라이빈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북미 피아노 경연에서 세계 최초로 최연소 10대의 우승자가 되었다는 쾌거를 듣게 되었다.

임윤찬의 결승 콘서트를 마치면서 지휘했던 지휘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내려오는 장면은 임군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세계를 향해 극찬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보고 싶어졌다.

사실 지금 이 필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반주를 해 주시는 피아니스트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펜을 듣게 되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서 찬양팀이 준비하기 전 은혜로운 잔잔한 울긋 연주하시는 분이 새벽 예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주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 분 "헬렌 김 권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 반주로, 울긋 연주로 쓰임받고 싶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곤 하신다. 그 울긋 연주를 위해 매일 새벽 예배 후 꼭 다음 연주를 위해 1시간씩 연습을 하실 때면 바로 옆에 앉아서 동역해 주시는 황영옥 권사님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분이심을 소개하고 싶다.

그뿐 아니라 새벽예배를 위해 사역자 분들의 마실 물을 보온병에 따뜻한 물과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병을 그리고 컵과 컵받침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오신다. 그런 극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꾸준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한결같은 모습은 우리네 일반적인 성도로서의 삶



과는 전혀 다르다 못해 범접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연구 대상 권사님"이라는 별칭을 붙여 드리는 것이다.

같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 하셨던 세 분 권사님께 헬렌 권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려보았다.

▶ 내가 지켜본 김헬렌 권사

*김정자(제1권사회 회장) 권사: "같은 교회에서 20-30여년을 지켜보았던 헬렌 권사님은 착한 심성과 늘 겸손하시고 한결같이 말없이 조용히 헌신하시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아 보이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복희 권사: 오랜 세월을 비 오는 곳엔 날씨에도 심한 바람 부는 날도 개의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겸손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권사님을 볼 때면 그 모습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아울러 존경심이 우리납니다."

*조혜숙 권사: 늘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섬기시고 아울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귀한 권사님 이십니다. 또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과일과 야채꽃을 손수 준비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참 닦고 싶은 롤모델이신 권사님 이십니다."



김준억 장로 팔순잔치 우리에게 가장 영양 많고 신선도 높은 상채의 빵을 공급하시려고 오늘도 바빠 움직

이고 계시는 베들레헴 사역국의 국장님이신 김준억 장로님께서 팔순을 맞으셨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장로님의 삶에 80 이라는 숫자는 그저 풍성함을 의미하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 부인이신 김정자 권사님과 오래도록 꽃길만 걸으시길 소원한다.



김선영 집사 이집트 여행 평생을 기다리고 꿈꾸어 오던 이집트 여행을 팬데믹이 거의 끝나는 믿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다. 기록된 오천 년 고대의 찬란했던 문화와 구약 성경에서 애굽을 비교하면서 많은 기억을 더듬어 갔던 여행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Emirates Dubai도 가볼 만한 여행지였다.

■ 기고/ KBS2 '영상앨범 산' 촬영 윤성문 집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세미티 절경에 절로 감탄사

촬영지: 요세미티 국립공원, 라센 볼케이닉 국립공원 / 촬영기간: 6월 16일-25일 / 요세미티 국립공원 1편 (티오가 패스와 미스트 트레일) - 7월 17일 방송

팬데믹으로 인해 발이 묶여 해외 촬영을 3년 가까이 미뤄왔던 촬영 감독마저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 바다 냄새에 감동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금문교를 거쳐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5시간 내내 6월 중순의 명랑한 날씨도 한 몫 했지만 촬영팀은 물론 출연팀도 설레긴 마찬가지였다.

잠시 눈을 붙였는가 싶더니 새벽 2시쯤 돼서는 모두 앞뜰로나와 맑은 새벽 하늘의 별자리들을 찾느라 들떠있는 눈망을 들이다. (시차로 인해 2시면 깨는 것이 정상적이긴 하지만...) 산속, 새벽의 기운은 생각보다 매서웠다. 알싸한 공기맛에 아침 산행 발걸음에 힘이 실릴 것 같기도 하다.

첫 산행코스인 겨우내 잠자고 있던 티오가패스(Hwy 210)를 관통하기로 했다. 투알룸 그로브를 지나면서부터 달라지는 자이언트 세코이아 트리와 더글라스 퍼 등 기골이 장대한 나무숲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유명세를 떨치는 요세미티의 모습을 접하기 시작했다. 패스 중간지점의 움스테드 포인트 앞에 서면 절묘하게 절반이나 잘려나간 화강암 바위로 이뤄진 해프톱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 바위의 뒷부분을 쇠줄을 붙잡고 정상까지 오른다고 생각하니 운폼에 전율이 흐른다.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하니 요세미티에 있는 약 2000개가 넘는 호수 중 가장 커다란 호수인 테나야 레이크를 만나게 된다. 맑은 호수에 비춰진 거울같은 푸른 반영의 모습은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저 호수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떻게 라고 조용히 묵상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호숫가를 하이킹하면서 호수의 깊은 물 속과 호숫가에서 자라는 툰드라 지역에서 보는 듯한 키 작은 야생화들을 만나게 된다.

반 시간쯤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투알룸 메도우의 평화로운 모습들을 접하게 되는데, 산위에서 눈녹은 물들이 흘러 만든 시냇물과 풀숲 길과 숲속 정겨운 오솔길들이 메도우를

하이킹하는 모든 이들에게 힐링의 선물을 안겨주는 풍요로운 곳임을 확인하게 된다.

티오가패스의 정겨운 모습들을 가슴에 담고, 머세이드 강이 유유히 흘러내리는 요세미티 밸리로 이동을 한다. 요세미티를 즐겨볼 수 있는 다섯 구역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하이커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미스트 트레일로 산행지를 옮겼다. 버널폭포와 네바다 폭포를 오르는 대략 5-6시간 정도의 산행코스로 산행로는 대부분 바위 계단길로 이뤄져 있다. 특히나 버널 폭포를 지나는 순간이면 흘러내리는 미스트를 피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 미스트를 맞으며 올라가는 발걸음이 더욱 흥겨워지는 것은 이 물보라에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을 날려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겨우내 쌓였던 눈들이 녹아 흘러내리는 머세이드 강의 수위가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최고조를 이루니 이때가 산행의 적기임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힘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의 비릿한 냄새와, 숲속의 피톤치드 강한 향취, 공기마저 달디단 이 냄새를 그리워하는 얼굴을 하이킹 내내 바라보게 되는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미스트 트레일은 씨에라네바다 산맥을 보존하기 위해 고군 분투했던 존 뮤어(John Muir)의 자취가 진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일명 JMT Trail 이라고 불리우는데 대략 220마일 (약22-25일 소요) 정도를 하이킹하는 대장정의 코스이다. 여러 JMT 들머리 중 한 곳이 미스트 트레일이다.

잘 짜여진 각본도 없이 대략의 스토리만 인지하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런 대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터져 나오는 감탄사들, 그리고 그에 맞는 리액션들이 아마추어 출연진들에게는 카메라 울렁증과 버벅거리는 말투, 반복되는 NG 사태에 동료들에게 미안해지는 등 여간 고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요세미티가 고스란히 받아들고 숲속으로 사라져가니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바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또 다시 감격과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

딸 · 손주들과 아름다운 3주 동행

정인자 권사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정인자 권사 부부와 딸 하이다, 손주 등 3대가 서부 여행길에 올랐다.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을 여행한 후 사우스 다코다의 마운틴 러시모어 국립공원에 도착하여 교과서 책에서만 보았던 네 바위의 얼굴을 보았다. 그랜드 틴튼 국립공원을 구경한 후 와이오밍주의 옐로우스톤에 도착하였다.

30년만에 다시 찾은 옐로우스톤에 손주 둘을 데리고 오는 경사임에도 세월이 격세지감을 느꼈다.



3대가 함께 여행한 스무 날 동안 나이에 따른 감동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자연을 보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여행이었다.

■ 음악 칼럼/ 베토벤 현악 4중주 15번

고통과 지병 끝에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고 겹쳐서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의 말년은 참으로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이 무렵 그의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긴 법정투쟁 끝에 양육권을 가져와 자신이 키우게 된 조카는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속을 썩이고, 오랜 기간 앓아온 지병은 위중한 지경에 이르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날로 자신을 옥죄어 오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베토벤은 결국 자리를 깔고 몸져 눕게 된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제15번 (String Quartet No.15 in a minor, Op.132) 은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인 1825년에 초연된 작품이다. 1악장과 2악장을 완성하고 병석에 누운 베토벤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요양하며 병세를 회복한 후 중단되었던 작곡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는 작곡을 재개한 3악장의 첫 머리에 '병에



서 나온 이가 하나님께 바치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라고 적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복했다는 사실에 각별한 영감을 받은 듯 3악장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고, 원래 4악장으로 구상했던 이 작품은 계획에 없던 3악장이 추가되며 총 5악장의 구성으로 완성되었다. 신체 여러 곳의 지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베토벤은 이미 자신의 신체가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해 했다. 가까스로 책상에 앉아 간신히 펜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회복한 것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했던

베토벤에게는 더없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라 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균열과 상실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 사망의 골짜기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 감사가 사라진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 불평의 말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의 표현도 습관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해 두 팔 벌릴 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 3대 모국 나들이/ 박민재 목사

예수님 모르는 친척·지인들에 '십자가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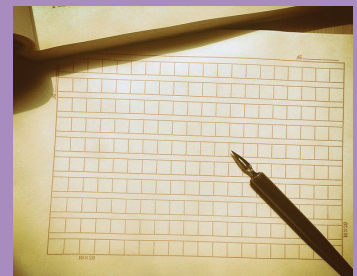
* 처갓집 식구들에게 말씀(복음) 전함-장모님(93) 노환으로 아프심. 처남은 1년 전에 수십 년 동안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섬겼는데 혈액암으로 세상 떠남. 그런데 처남이 청년 때 섬겼던 하나님을 멀리해 이번에 절절한 마음으로 권면함(큰아들도~). 둘째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내의 유방암으로 치료 중. 형님(처오빠) 딸은 뇌종양으로 고생하다 많이 좋아진 상태. 처형 남편은 폐암 4기로 투병중이다가 2년 전부터 예수님 믿고 예배에 참석중.

* 은준이 할아버지(사돈 신앙권면)-이모 할머니들 2회에 걸쳐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함. * 저의 막내딸 시아버님(신앙권면) 암으로 투병중이라 만나 예배드리면서 위로하고 권면함. * 저의 큰형님 오랫동안 불신앙으로 계셔서 큰형님 동생네 조카내외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말씀(복음) 전함. * 서울에서 국민학교 동창생들 8



명 나와 예수님 복음 전함. * 시골 모교회가 중직자들의 분란으로 성도들이(친구 포함) 떠나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신 분 많아 전도지 준비해서 4개 마을 다니면서 권면하고 전도함. 그 외에도 택시타고 가다,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등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함.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최고의 사명이기에~

* 금번 고국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